

교회소식 1

1.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로비에 있는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와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성도 소식

* 부고: 고 김경숙 (Jane Kim) 성도님(마가평원)께서 2월 10일에 향년 만 7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환송예배는 3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Lima & Campagna sunnyvale Mortuary, 하판예배가 Gate of Heaven에서 이어집니다
* 오늘 친교음식은 고 박한영 집사님의 천국 환송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심준보/심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3. 3월 새가족 환영회

* 일시/장소: 3월17일(오늘) 오후4시, 담임목사님 덕
* 문의: 새가족3부 부장 강현정 510)418-9838

4. 부활주일(3월31일) 유아세례 안내

* 신청대상: 생후 24개월 이하의 아기
* 유아세례 부모교육: 3월30일(토) 오전 10시 30분 Zoom Meeting
* 신청: 영유아부 관옥혜 전도사 408)540-8771

5. 3월 예수영접모임

* 일시/장소: 3월21일(목) 오후 7시, 당회실
* 참석하실 성도님이나 목장은 3월19일(화)까지 교회 사무실로 참석자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세요. office@epcsj.org

6. 3월 VIP 담뭍기메 ('담뭍'은 담임목사님께 물어 보세요)의 출임말

* 성경, 복음, 신앙생활, 사회적 이슈 등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께 담임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혹은 목장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궁금증을 나누며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 일정: 개인일 경우 목사님과 일정 협의, 목장방문은 넷째 금요일
* 신청: 3월17일(오늘)까지
* 문의: 팀장 이소영 soyoungcrew@gmail.com 408)663-7216

7. 복음 명함 신청 접수 및 랜잡아업서, 심플업서, 심플카드 판매

* 기간/장소: 매월 첫째주 2부 예배 후 본당 로비
* 문의: 훈련지원팀장 김사라 408)701-7307

8. 2024년 상반기 선교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3월17일(오늘) ~ 4월7일(주일)
* 신청자격: 본 교회 후원선교사, 선교사 자녀, 본 교회 성도 및 성도의 추천을 받은 분, 본 교회의 후원선교사의 추천을 받은 현지인 사역자 중 선교목적으로 공부하는 분, 본 교회 성도 중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 재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 문의: 선교기획부 특별후원팀장 문현규 orchestra.jk@gmail.com

교회소식 2

청원서 서명

캘리포니아의 다음 세대를 성경체성 혼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일정: 3월 24일까지, 주일 1, 2, 3부 예배 후 본당 로비
* 대상: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하신 미국 시민권자

2024년 상반기 단기선교자 모집

* 사역지: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프레스노, 폴란드
* 사역기간: 5월부터 8월 사이
* 신청: 온라인 등록 및 본당 로비
* 문의: 단기선교부 부장 정돈희 donhee.jung@gmail.com



2024 전교인 1인 2 VIP 품기 및 VIP 초청 잔치

* 주제: 생명과 풍성한 삶 (오10:10)
* 강사: 이승재 목사(가까운교회 담임)
* 일시/장소: 4월27일(토) 오후4시, 중고등부 예배실
* 문의: 팀장 건태은 408)857-3865, evangelism@epcsj.org



VIP초청



릴레이 기도

9. 무숙자(홀리스) 필요물품 후원

* 후원물품: 후라이팬, 냄비(새것 또는 깨끗한 중고)
* 기간/장소: 3월17일(오늘)까지, 사랑의장터 내 준비된 수거함
* 문의: 무숙자 섬김팀 강창균 408)667-0005, 김태형 408)250-1097

기도 및 봉사원

구 분	이번 주(3/17)	다음 주(3/24)	
수요예배	김인희B 권사(3/20)	윤신자 권사(3/27)	
토요새벽	최경규 목자(3/23)	한광선 목자(3/30)	
기도	1부	이태업 장로	박찬우 장로
	2부	박찬우 장로	장은규 장로
	3부	김인환A 집사	김일규 집사
예배안내	김재찬 초원	최철수 초원	
친교봉사	박찬우/한희상 초원	송동혁 초원	

지난 주일 헌금

신일조	36,413.83	감사헌금	2,210.00	주정헌금	12,760.00
주일학교	212.00	선교	1,120.00	일반지정	1,750.00
구제지정	100.00	선교지정	820.00	목장선교	4,764.00
청년부	741.00	친교식권	1,070.00	합계	61,960.83

예배와 모임 안내

목장모임	매주 금, 토, 주일	목장별로
수요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월-금)오전 5:45, (토)6:00	본당
화요여성예배	(화) 오전 10:20	EM예배실
수요애녹예배	(수) 오전 10:00	EM예배실
한국학교	(토) 오전 9:30	각 교실
어와나 Awana	(수) 오후 7:30	어와나실
청년부 금요집회	(금) 오후 7:30	EM예배실
중고등부 인카운터	(수) 오후 7:30	중고등부실

행사 및 모임

오늘 오전07:10 오후12:00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EM예배실) 선교 중보기도회(새가족실+온라인 모임)

3/20(수) 오후07:30 라오스 단기선교 보고
3/23(토) 오전08:00 가정교회 세미나(EM예배실)
3/25(일) ~ 30(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29(금) 오후07:30 선교요일예배(성찬식)
3/31(주일) 2,3부 부활절 온가족예배 All Family Worship

금주의 합심 기도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3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소서
* 내 마음 속에 최소 한명의 VIP를 품어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파송/협력선교사 기도제목>

* 선교지역: 네팔
* 선교사: 네팔 선교사
* 기도제목
1) 빠른 뽀커리 지역교회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통해 훈련받은 교사들과 주일학교가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 막 발을 내디딘 기후/환경 학교와 기후/환경위기 계몽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서 잘 진행 되도록

일없는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00

환영/예배의 부름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양	다같이
기도	박기한 목사
	1부 이태업 장로
	2부 박찬우 장로
찬송	다같이
*헌금봉헌	317장 1,5절
찬양	다같이
성경봉독	찬양대
말씀선포	삼상6:1-16
	인도자
	박성호 목사

"겡데기 신앙의 위험성"

*찬양과 기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다같이
*축도		설교자

3부 오후 12:00

환영/예배의 부름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양	다같이
기도	김인환A 집사
*헌금봉헌	317장 1,5절
성경봉독	삼상6:1-16
말씀선포	인도자
	박성호 목사

"겡데기 신앙의 위험성"

*찬양과 기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다같이
*축도		설교자

(*표는 다함께 일어서서)

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성경봉독	삼상6:1-16
말씀선포	박성호 목사
	"겡데기 신앙의 위험성"

EM 예배 오전 10:00, EM예배실

성경봉독	행11:19-26
말씀선포	P. James Oh
	"First Called Christians"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기도	김민희B 권사
선교보고	라오스 선교팀
성경봉독	삼상12:19-25
말씀선포	박기한 목사
	"사명자의 기도"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당

기도	최정규 목사
성경봉독	삼상21-24장
말씀선포	박성호 목사

교육부서 예배 1부 오전10시 2부 오후12시

부서	설교 본문 / 제목	설교자
영유아부	행6:8-7:60 "스데반이 예수님을 견뎠어요"	곽은혜 전도사
유치부	행7:51-60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송호영 전도사
K-1부	행7:51-60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송호영 전도사
초등부	행7:51-60 "Worth My Life"	김하은 전도사
중고등부	행6:8-15; 7:51-60 "Who Owns the Church?"	임슬기 전도사
사람교육부	행7:54-60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서경의 전도사

새벽기도(QT) 본문과 설교자 / 성경봉독 본문

날짜	새벽기도(QT) 본문	설교자	봉독 본문
3/17(주일)			삼상1-3장
3/18(월)	통독 본문 중에서	이산돌 목사	삼상4-7장
3/19(화)	통독 본문 중에서	조종연 목사	삼상8-10장
3/20(수)	통독 본문 중에서	오솔길 목사	삼상11-13장
3/21(목)	통독 본문 중에서	민효식 전도사	삼상14-17장
3/22(금)	통독 본문 중에서	박기한 목사	삼상18-20장
3/23(토)	통독 본문 중에서	박성호 목사	삼상21-24장

목회 칼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저는 2003년 5월18일에 PCA 한인수도교회 주관으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20년도 넘는 오래 전 일이지만 저 개인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안수식의 순간순간들이 빛은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손에 잡혀 있는 사진처럼 제 기억 한 편에 자리 잡아 지금도 저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너 잘 감당하고 있냐?'고. 촉가를 불렀던 당시 사담대학부 청년들, 사회와 권면을 해 주신 저의 예전 담임목사님 노창수 목사님, 설교로 도전해 주신 그 이원상 목사님 등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 소중한 분들의 말씀들이 여전히 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저에게 권면하셨던 노창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후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되뇌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경단은 알고 있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을 돌아보니 때로는 예수님 없이도 여러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열매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다시 처음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4년이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첫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이 숙제가 아니라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지저 계산가요? 나를 일깨우시고 부르신던 그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부활절은 3월31일 주일입니다.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주간에는 성경통독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22-23장을 중심으로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새벽, 찬양팀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임재로 인도할 것입니다. 분주한 한 해로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다시 새벽을 깨우며 우리를 부르신 첫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일 성금요일 오후 7시30분에는 함께 모여 성찬예배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서 복되고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설교 요약 삼상6:1-16, 겡데기 신앙의 위험성

* **마음의 문을 열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시대,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현상만 남아 있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진정한 위기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요?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을 자신만 모를 때, 그 때가 진정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 이야기를 다루는 사무엘상 4-6장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많은 교훈을 독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 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4장: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겼다
5장: 하나님의 언약계가 블레셋 진영에 머물다
6장: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시 돌아오다

* **삶의 열매를 거두며**
- 언약계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 "내 뒤통수를 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 닦하지 말고, 뼈아프더라도 내 뒤통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
-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패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 알맹이는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